

中 티베트 강진 사망자 126명으로 늘어...가옥 3609채 붕괴

부상자 188명 가운데 중증환자 28명 병원으로 이송 진앙 20km 내 6900명 거주...피해 규모 더 늘어날 듯

지난 7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서부 내팔 국경 인근 시짱티베트자치구 고원 지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26명으로 늘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 시짱 자치구 제2도시인 르카찌(시가체)시 닝르현에서 발생한 규모 7.1(미국 지질조사국 기준·중국 발표는 규모 6.8) 지진으로 오후 7시 기준 126명이 숨지고 18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당국은 부상자 가운데 중증환자 28명을 르카찌시인민병원에 이송했다.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가옥은 3609호로 집계됐다.

앞서 신화통신은 진앙 주변 20km 범위 안에 주민 약 6900명이 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3000채가 넘는 붕괴 가옥을 감안하면 앞으로 구조·수색 작업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구조팀이 고퍽

주민 407명을 구해내고, 임시 거주 구역 14곳을 설치해 이재민 3만400여명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진으로 파손됐던 도로가 모두 복구됐다고 덧붙였다.

중국 지진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내팔 히말라야 지역에 인접한 시짱자치구(북위 28.50도·동경 87.45도)에서 발생했다.

진앙 주변 5km 범위 평균 해발 고도는 약 4259m다. 진앙으로부터 5km 범위 안에는 탕런촌·쉬주촌·가러귀지촌·메이뤄촌·차지·라장·강중 등 마을이 있고, 20km 안에는 취뤄향과 취뤄향의 취뤄향·취뤄향 등 14개 향진(鄉鎮·중국 농촌의 기초 행정 단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5년 동안 진앙 주변 200km 안에서 규모 3 이상 지진이 29회 발생했다며 이번 지진이 "최근 5년 안에 발생한 최대 지진"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7일 규모 7.1 강진이 발생해 1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구조대들이 무너진 건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미 카터 유해 워싱턴 도착...의사당 안치 후 오늘 국장

'에어포스원'으로 운구 최고 예우 해군기념관~의사당 장례 행렬 장례식 후 고향 조지아주 안장

향년 100세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시신이 7일(현지시간) '국가 장례식'(state funeral)이 치러지는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은 이날 오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카터센터를 출발, 항공편으로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지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4년 임기를 마치고서 백악관을 떠난 카터 전 대통령이 영면을 앞두고 마지막으 워싱턴을 찾은 셈이다.

워싱턴까지 운구하는 데는 '에어포스원'으로 불리는 미 대통령 전용기가 사용됐다.

특히 이번 운구를 맡은 에어포스원의 편명은 '특별공중임무 39'(Special Air Mission 39)로 부여됐다. 카터 전 대통령이 제39대 미 대통령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성조기에 싸인 카터 전 대통령의 관이 비행기에 실리고 내려지는 과정은 군악대의 찬송가 연주와 21발의 예포 발사 등 최고 수준의 예우 속에 진행됐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영구차에 실린 뒤 워싱턴 시내 미 해군 기념관으로 향했다.

그가 해군 장교로 복무한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 이곳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이 놓인 관은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과 도열한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구 마차로 옮겨



4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지미 카터 대통령 도서관·박물관에서 의장대원들이 이곳에 안치된 카터 전 대통령의 관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졌다.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 행렬은 미 의회 의사당으로 향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거리 곳곳에는 많은 시민이 모여 카터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마지막 행진을 지켜봤다.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이 의회 중앙홀에 일시 안치되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거행된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존 톨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공화·루이지애나)이 추도사를 할 예정이다.

일반인 조문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자정까

지, 8일 오전 7시부터 9일 오전 7시까지 가능하다.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전현직 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추도사를 할 예정이며, 중간 카터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장례식에 참석한다.

이후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은 고향인 조지아주의 플래인스로 옮겨져 안장된다.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파나마운하·그린란드 향한 '트럼프 야심'

"무력 배제 확인 못해...美 편입 투표 방해뎀 덴마크에 고을관세"

오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복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운하,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군사력 사용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행한 대선 승리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심을 끄는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두 사안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등에서 중요하다고 밝힌 뒤 "나는 그것(경제 또는 군사적 강압수단 사용 배제)을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그린란드 주민들이 독립 및 미국으로의 편입을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 덴마크가 그것을 방해하면 매우 높은 관세를 덴마크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파나마 운하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며 파나마에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가 미국에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파나마 운하(문제는 현재 그들(파

나마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들(파나마 정부)은 협정의 모든 면을 위반했고, 도덕적으로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운하 보수를 위해 (미국이) 30억 달러(약 4조3000억 원)를 지원해줄 것을 원한다"며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중국에게서 받아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파나마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자신이 고을 관세 부과 구상과 미국으로의 편입 가능성 등을 거론했던 캐나다에 대해서는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강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인 2%를 크게 뛰어넘는 요구 수준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아랍에미리트역량장자 후세인 사자와의 "다막 자산" 회장이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200억 달러(약 29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지난해 11월 5일 치러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두 번째 회견이자 전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선 결과에 대한 인증 절차가 종료된 뒤 처음 진행된 것이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